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C O N T E N T S

이용자수기

 **06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준 아이돌봄서비스**
강원도 춘천시 YMCA | 강세희 님

 **13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경기도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세나 님

19 쌍둥이와 두 분의 돌보미 선생님
경남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송옥 님

**24 육아의 고통뿐 아니라 크나 큰 심적 부담을 덜어준 건
다름 아닌 아이돌봄서비스였다**
전남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미연 님

29 나의 '아이(I)'를 돌봅니다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태옥 님

 **35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돌보미 선생님**
부산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은경 님

41 우리 가정에 희망의 꽃을 피워 준 아이돌봄서비스
부산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정화 님

46 나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강원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오기우 님

 **50 햇살 가득 사랑**
제주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성희 님

56 세계 최고 예준이 선생님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백혜은 님

돌보미수기

 **64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의 사랑 어린 천사들**
충남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윤금희 님

 **69 아이들 얼굴에서 꿈이 보여요!**
경기도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춘 님

 **74 목적지는 저 멀리 있지만 한 걸음씩 걸다보니
지나온 길이 아름다워 천천히 천천히 걸어볼 테다**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김효은 님

79 육남매의 등대지기
경남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은주 님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이용자수기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준 아이돌봄서비스 • 강원도 춘천시 YMCA | 강세희 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에겐 큰 복입니다 • 경기도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세나 님

쌍둥이와 두 분의 돌보미 선생님 • 경남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송옥 님

육아의 고통뿐 아니라 크나 큰 심적 부담을 덜어준 건 다름 아닌 아이돌봄서비스였다
• 전남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미연 님

나의 '아이(이)'를 돌봅니다 •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태옥 님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돌보미 선생님 • 부산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은경 님

우리 가정에 희망의 꽃을 피워 준 아이돌봄서비스 • 부산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정화 님

나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 강원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오기우 님

햇살 가득 사랑 • 제주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성희 님

세계 최고 예준이 선생님 •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백혜은 님





“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준 아이돌봄서비스

강원도 춘천시 YMCA | 강세희 님

2012년 4월 16일 34세의 나이로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요즘은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아이 낳는 여성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나도 빠른 건 아니었다.

많이 기다려온 아이이기도 했지만 타지에서 남편 외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육아를 해야 했기에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고 100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이 없었고, 오로지 아이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찬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모유에 대한 집착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모유를 기어코 먹이려고 1시간에 한 번씩 젖을 물려야 하는 상황도 견뎌내면서 1년을 분유 한 톨 먹이지 않고 모유수유를 해냈고 노력의 결과로 아이가 5개월쯤 됐을 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남들은 적어도 2~3일 분량을 만들어



서 냉동 보관하여 먹인다는데 나는 매 끼니 때마다 항상 새 밥을 해서 먹였다.

아이가 7개월쯤엔 처음으로 감기라는 걸 앓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만 받고 일절 항생제 투여도 하지 않으며 배즙이나 도라지즙, 무즙 등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열이 나면 물수건을 해주면서 꼬박 날 새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간호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42개월이 될 동안 감기가 오면 여전히 잘 이겨내고 나름 면역력이 강한 아이가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내 육아를 장황하리만큼 써내려간 이유는...

난 그만큼 아이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소위 말하는 ‘육아 집착’...

그러나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정신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 복직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아이와 나름대로 떨어질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들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는 교사이지만 나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라 수업도 많고 특히나 야간수업을 해야 해서 동료교사와의 마찰, 교장 선생님과 마찰이 적잖이 일어났다.

비록 복직은 했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사나운 맹



수처럼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공격적으로 대항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했어도 할 말이 없다.

출근도 8시까지 해야 해서 7시 30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불에 돌돌 말아 어린이집 선생님께 건네드리는 순간 잠이 깨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난 뒤돌아 펄펄 울면서 출근해야했다.

그러다 결국 한 학기 만에 교장 선생님의 권고로 다시 휴직을 하게 됐다. 그 당시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행복해했던 내가, 내 아이가 생기면서 엉망진창이 된 직장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미워지면서 동시에 내 아이마저 미워졌다.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육아로 인해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1년을 휴직했지만 1년이란 시간은 길지 않았다. 휴직과 동시에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빠른 출근시간이 제일 걱정이었다.

주위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연일 터지는 영아학대 뉴스에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시선이 많은 어린이집에서도 저렇게 학대 사건이 많은데 ‘베이비시터와 어린아이가 단둘이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어린이집 보내는 건 아이도 나도 고통인거 같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돌봐주실 분을 찾으려 전단지도 붙이고 육아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해보았다.

하지만 예상 밖에 높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혹스러웠다. 아이 맡기는 일에 돈 아끼지 말라는 친정어머니 말씀에 “그래. 돈 아끼려다 이상한 분 만나면 더 큰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무리해서라도 높은 금액 말씀하시는 분께 맡기려고 했다.

그 찰나에 지인에게 전단지나 주위 소개로 돌보미를 알아보는 것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정기적으로 돌보미 건강검진도 하고 보수교육도 받는 분들이 돌보미를 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춘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하는 춘천YMCA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돌보미 사전면접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면 좋겠다고 요청하며 면접 신청을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너무 좋은 분이 오셨다. 게다가 요청 드린 대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분이셔서 아침 일찍 오시는게 가능한 분이였다. 남편과 나는 너무나 좋아서 주저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어 CCTV를 설치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CCTV가 있든 없든 잘해주시면 아이의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돌보미 선생님을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기대 이상으로 육아 전문가였다. 가을엔 낙엽을 가지고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와 놀아주시고, 직접 잠자리 채도 가져오셔서 평소 내가 챙겨주지 못했던 일하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주셨다.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유난히 좋아하던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곧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 언덕에서 썰매놀이를 하자고 아이와 약속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감사하던지 ...

돌보미 선생님은 정말 아이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 된 거 같다.

그렇게 좋은 분과의 인연으로 지금은 1년 전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이도 돌보미 선생님을 잘 따르고 있고, 시간 약속도 정말 잘 지키시고, 성실하신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내 약간의 정신



병적인 육아집착증도 희미해져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이에게 엄마가 밥 주고 출근할까 하고 물었더니 나중에 돌보미 선생님 오시면 먹겠다고 하는 우리 아들...^^

간간히 출근하는 나를 부여잡고 학교 가지 말라며 울긴 하지만 돌보미 선생님께서 잘 달래주시고 아이가 안정된 상황을 알려주시며 사진도 찍어 보내주셔서 한결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 복직 때에는 빠른 출근에 아이의 잠을 깨워야 하는 게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이젠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니 아이가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도 폭 재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은 이용금액과 깔끔한 아이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등이 이용자로서 너무 편리하다.

신뢰할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 육아에 부담을 나눠지게 되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를 다시 찾게 되고 학교에서만큼은 엄마가 아닌 교사로서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수기공모전 소식을 듣고 상품을 바라기보다는 나처럼 육아집착증이 있고, 의심이 많고,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엄마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시라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내어 글을 쓰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다.



“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경기도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세나 님

올해로 서른다섯, 사남매 아이 엄마인 저는 ‘아이돌봄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꽤나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유익한 서비스를 저만 알고, 저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넷째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관할 주민센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민원실 한쪽에 비치된 안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문구에 제 눈과 관심이 온통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다섯 살, 여섯 살, 입곱 살의 연년생 삼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갓 태어난 넷째 아이까지 돌보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예상했던 터라 안내지를 보자마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직원은 “며칠 기다리시면 이용 등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자녀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친절한 안내와 함께 격려도 덧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이용 및 지원 가능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후, 넷째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역시 외부의 도움 없이 사남매 육아를 감당하기에는 더 이상 벅차다’라고 판단되어 ‘아이돌봄서비스’로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문의했고,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넷째 아이가 낯을 가리기 전이라 돌보미 선생님을 잘 따랐고 저는 돌보미 선생님께 아기를 맡긴 후 그동안 미루거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루던 집안 환경정리와 넷째 아이로 인해 다소 소홀해졌던 아이들의 학습도 조금씩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넷째 아이 출산 전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수원으로 가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출산 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것을 올봄부터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넷째를 돌보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류 중이던 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제 삶은 더욱 활기를 찾게 되었고, 이는 제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남매를 양육하면서 개인적



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마였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남매의 양육과 ‘나’ 자신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보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가끔 오셔서 아이들 봐주시려 해도 아이가 이미 낯을 가리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아이의 특성 등 당부해야 할 일도 많아서 내내 신경이 쓰였었지만, 돌보미 선생님은 꾸준히 몇 시간씩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에 엄마인 저 다음으로 제 아이를 잘 아시고 아이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게 있어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정엄마 그 이상의 좋은 분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는 셋째 아이가 열이 나고 끄끙 앓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열감기라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느 명절 때처럼 추석 연휴 동안 시댁인 남양주와 인천의 친정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해열제를 먹이면서 그렇게 추석연휴를 보내는 동안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추석연휴가 지난 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폐렴으로 아파하는 셋째 아이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아이들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이와 7살인 둘째를 등하교 시키면서 셋째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봐주기 위해 넷째 아이를 돌



보미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셋째 아이의 폐렴이 어린 넷째 아이에게 감염될 것을 우려해 넷째 아이를 아이돌보미 선생님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돌봐주셨고, 선생님의 배려와 기지 덕에 셋째 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었는지 며칠동안 기침을 하는 것을 동네 의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지냈는데 어느 날 밤 호흡장애가 있어서 119에 전화를 걸어 증세를 말씀드리고 상담했더니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왔을 수 있으니 응급실에 가는 편이 좋겠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사남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병원에 갈 수 없어 다음 날 내과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니 폐렴이라고 당장 입원을 하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주시는데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저는 아이들이 넷이라 입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울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 증세는 더 심각해져서 누워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어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드리고 며칠 동안 아이돌보미 선생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입원을 해도 될까 여쭙었고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상황을 잘 전달하시고 신속히 연계를 진행해주셔서 넷째 아이들 맡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진료받은 후 드디어 지난주에 퇴원하여 사랑하는 남편, 그



리고 사남매 아이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셔서 다자녀 엄마가 겪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도 한결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제가 근래에 겪었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양육을 지원해주고, 부모에게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언제나 제가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과는 다른 더욱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이들 넷을 다 키워요? 힘들겠다.”

그럼 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다해요? 요즘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함께 키워줘요. 그러니





까 넷도 키우죠!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넷도 키워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다들 돌보미 선생님은 누구냐고 물어옵니다. 그럼 ‘아이돌봄서비스’ 라는게 있다고 하며 주변 분들에게 저는 소개합니다. 제가 입원 중이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넷째 아이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왔고, 저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봐주셔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라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글을 마무리 합니다.

센터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애쓰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를 당신 손자처럼 사랑스럽게 돌봐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온가족이 행복합니다.



“

쌍둥이와 두 분의 돌보미 선생님

경남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송옥 님

2015년 1월에 저에게 두 딸이 생겼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쌍둥이는 입양되기 전 위탁모 집에서 자라다 입양될 무렵 감기 몸살을 앓다 우리 집으로 오고 둘째딸은 심하게 아파 입원했다가 일주일 뒤에야 집으로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1월, 2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배밀이를 하는 6개월 쌍둥이는 온 집안을 기어 다니며 이곳저곳 다니며 긁히고 뜨거운 것을 만져서 화상을 입어 고생도 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본다는 게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습니

다. 저에게는 고3, 중3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던 15년 전에는 어린이집 영아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혼자서 3살 터울의 아이들을 키우자니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주위에는 시댁도 친정도 없어서 도와주실 분도 없었죠. 늘 잠이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젊어서 견뎌냈지만 40대인 저에게 새로운 육아는 체력이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3월 복직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위 분들에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듣게 되면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잠깐씩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제도가 저에게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엄마들에게도 잠시의 휴식이 필요하고 집안일을 해놓고 아이를 볼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온 쌍둥이 두 딸은 8개월 만에 1.7Kg, 2.3Kg으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있다가 위탁모에게 갔다고 들었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아이라 어린이집에 가면 감기를 달고 살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빠가 둘이 있는지라 6인 가족으로 분류가 되어 하나를 맡기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부담도 덜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돌봐주시는 체계이지만 저희 집은 읍내 외곽에 있는 집이라 출근하며 돌보미 선생님 댁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집에 쌍둥이를 볼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 힘들어 한 명씩 따로 맡기기로 결정하고 선생님들을 물색하던 중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두 분의 돌보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돌보미 선생님 댁은 둘째 아이 학교 옆에 있는 곳이라 등굣길에 둘째를 내려주고 아파트로 가서 쌍둥이를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큰딸은 호기심이 많고 몸이 가벼워 차분한 성격의 선생님께서 돌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딱 맞는 선생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시며 호기심을 채워주시고 산책을 하면서 고양이도 보여주시고 이야기도 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둘째 딸은 움직임이 적고 배밀이도 늦어 활동적인 선생님과 함께 하면 좀 활발해질까 했더니 활동적인 선생님께서 함께 놀아주고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해주셔서 기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약하게 태어난 큰딸은 아침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심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돌보미 선생님께서로부터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으로 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도 아이가 조금 보채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열이 나고 늘어지니 선생님은 얼마나 놀라셨는지 병원으로 달려간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이 노랗게 질려 있



었습니다. 열성 경험으로 2번 연달아 아이가 늘어져서 해열제를 놓고 큰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되어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고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아과 선생님께서는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열이 나지 않아야 검사를 할 수 있고 별 이상이 없으면 퇴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제가 연가를 내고 데리고 있으면 되지만 당장 쌍둥이 동생이 걱정 되었습니다.

큰딸을 돌보는 선생님과 작은 딸을 돌보는 선생님들께 전후 사정을 말씀 드리니 흔쾌히 밤에도 봐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입원한 아이를 잘 보살피라며 힘을 주셨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돌볼 수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눈물이 날만큼 두 분께 너무 고맙었습니다.

아이는 4일 동안 입원해서 힘들게 골수 검사, 뇌파 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열 조심하란 당부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혼자서 엄마를 독차지 하는 동안 동생은 엄마가 보고 싶어 잠을 설쳤다고 했지만 퇴원하고 만난 작은딸은 잘 먹고 잘 지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잘 돌보아 주셔서 몸무게도 많이 늘었고 말을 배우려고 웅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돌봐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쌍둥이라 엄마가 혼자 힘들다고 매일 마중 나오시고 직장을 마치고 데리러 가면 두 분이 만나서 산책시키며 기



다려 주시니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봐 주시다가 주말에 정신없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경험이 많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 우리 집으로 온 천사들은 이제 15개월 호기심쟁이들이 되었습니다. 둘이 서로 엄마를 차지하려고 싸우곤 해서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시작했지만 돌보미 선생님이 집에서 돌봐주시던 때보다 자주 감기에 걸리고 부딪쳐 다쳐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토요일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아이를 돌보미 선생님께 맡기고 남편의 농장일도 돕고 주중에 밀린 집안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니 다칠까 아플까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때론 친정언니 같고 때론 친정엄마 같은 자상하고 세심한 돌보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돌보아주세요.

고맙습니다.





“

육아의 고통뿐 아니라 크나 큰 심적 부담을 덜어준 건 다름 아닌 아이돌봄서비스였다

전남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미연 님

2010년 서른 두 살의 결코 적지 않은 나이로 결혼을 하고 다음 해 임신을 했지만 유산으로 인해 첫 아이를 잃고 말았다. 다시 자연스레 임신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임신 소식은 쉽사리 우리 부부를 만나러 와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여자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시험관 시술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요즘은 환경 때문에 멸절한(?) 사람들도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한다는 담당 의사의 말이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막연한 두려움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매일 같은 시간, 하루에 세 차례씩 주사바늘을 배에 스스로 꽂아야만 하는 나는 이미 자연임신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행한 여자이자, 아내이며, 누군가의 딸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픈 네 차례에 걸친 길 다면 길



고, 짧다면 짧은 시험관 시술 끝에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2014년 제왕절개 시술로 낳게 되었다.

한 여자로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견뎌야 했던 시간만큼 나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상해 있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탓인지 젖조차 불지 않아 갓 태어난 쌍둥이 남매에게 초유조차 먹일 수 없는 못난 엄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만 생기면, 아이들만 낳게 된다면 더는 걱정할 것도, 울 일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 부부에게 전보다 더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쌍둥이 남매를 낳고, 나는 산부인과 입원 기간 동안 밤이면 밤마다 병원 복도 맨 끝 의자에 앉아 끼이끼이 울어댔던 통에 울보엄마로 유명세를 떨치고 말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을 좀 앓았었던 것 같다.

남들이 부러워하는(실상은 너무 힘들지만)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새로운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다.

결국 건강도 좋지 않으신 친정 부모님에게 육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나는 내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첫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의 쌍둥이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이었다.

끼니는커녕 잠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정상적



으로 할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주변 누구의 도움이라도 절실했지만 정작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스스로뿐 아니라 쌍둥이 남매에게도 위태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결국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시댁과의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다시 혼자서 그 위태로운 육아를 하게 될 예정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쳤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육아의 고통뿐 아니라 크나큰 심적 부담을 덜어준 건 다름 아닌 아이돌봄서비스였다.

출산 전에도 출산 후에도 몰랐던 아이돌봄서비스를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후 영암군다문화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선생님을 만났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두서없이 나열하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더니 차분히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는 담당선생님 때문에 결국 남모르게 마음속에만 감춰두고 있었던 부끄러운 속사정까지 털어놓고 말았다.

거리가 있어 차량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다른 이용자 가정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차량을 가지신 선생님들의 시간 조정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까지도 뒷집 지고 모른 척했던 육아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지금이 가장 힘들 시기라고,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다는 센터 선생님의 그 말들이 구정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와 아이들을 그렇게 천천히 건져 올리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만난 그날 이후, 차량으로도 먼 거리이지만 기꺼이 아이들을 돌봐주러 오신 돌보미 선생님과 센터 담당선생님의 수고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와 아이들을 지켜주었다.

약 두 달 후쯤 나는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삼호읍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부쩍 자란 아이들을 키우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가고 있었다.

하루에도 열두 번 바뀐다는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 다니게 되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쉬었던 직장으로 복귀가 성큼 다가왔다.

더 이상의 육아휴직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 나는 또다시 직장 복귀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내게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영암군다문화센터 담당선생님과 아이돌보미 선생님.

장거리 출근으로 이른 시간 아이들을 맡겨야 했지만, 쌍둥



이 특성상 또한 영아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보육을 맡아주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기로 결
정하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는 내가 직장에 복귀해도 출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하셨고, 센터 선생님께
서도 양육 공백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겠다 하
셨다.

하나라면, 아이가 하나라면(아이가 하나인 엄마들이 절대로
쉬운 양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상황이라
도 둘이라 나 역시 좌충우돌 초보 엄마이기에 그분들의 도움이
절신했다.

**직장맘으로 복귀한 후 일과 양육에 지치지 않게끔 나를 지탱해
준 정말이지 고마운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소
위 말하는 낙후된 지역(시골)에서는 유일무이한 것일 텐데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하면 또래 엄마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다보면 어느새 아이들 진료가 끝나고
결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기약 없는 만남을
끝낸다.

이 좋은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엄마들의 힘든 육아에 조금
이나마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

이용자 수기



“

나의 ‘아이(I)’를 돌봅니다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태옥 님

어제 비가 와서인지 오늘 하늘은 정말 눈부시게 푸릅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을 파랗게, 신선한 공기를 달콤하게, 있는 그
대로 느끼고 마셔본지도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 아침 가벼운
숨결을 내쉬며, 이제 내년이면 40을 바라보는 길목에 서 있는,
미혹되지 않을 나이, 사물의 이치를 득하고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는 불혹(不惑)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특별한 나만의 삶, 나만의 ‘미래(未來)’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저의 꿈은 제 마음 저 깊은 바
닥에서 지렁이마냥 아직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
면서, 그리고 제 옆에 문득 아내가 찾아오고, 아내와 저 둘만의
공간이었던 곳에 두 딸아이가 생기면서부터, 그 ‘특별하다’는
말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였던 저는, 이제 어느 덧 ‘나’라는 말 대신 ‘우리’
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우리’라는 말 속에서 그동안
의 ‘나’와는 또 다른 ‘나(I)’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저 멀리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보내놓은 25개월, 9개월 두 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큰 맘 먹고, 통 큰 남편으로 살고 싶어 아내를 저 멀리 떠나보냈는데, 그 빈자리는 생각 외로 큼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저와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를 세 명이 채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아도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몸이 조금 편찮으신 장모님을 대신하여 장인어른께서 작은 아이를 키우다시피하시고, 어느 때는 큰 손녀도 함께 보시기도 합니다. 평생 아이 키우는 일, 양육의 길을 여자의 일로만 여기셨던 장인어른께서 하루는 식탁에서 저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 해보네.” 요즘 장인은 여자의 인생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저에게도 군대보다도 짝세게 느껴지는데... 장인의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한참을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뿐만 아니라, 한 여자의 삶을 고려하여 투르크멘인들의 나라로 보내기로 힘들게 결정을 한 데에는 장인과 장모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두 아이를 돌봐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가느



냐, 남느냐를 두고 우리 두 사람이 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엄마의 부재 시에 두 아이를 잘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저희 두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힘과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큰 딸이 25개월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초보입니다. 그런 저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돌보미 선생님의 등 뒤에는 항상 광채가 서려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 호호는 원위치를 되찾아가고 이성이 되돌아오고,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 한 치의 주저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을 꼽을 겁니다. 선생님도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아이를 키우는 지금에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십 명의 성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25개월, 9개월 두 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보미 선생님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 그렇게 편안하게 웃으시며 두 아이와 놀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을 읽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풍선을 불어주십니다. 어디서 그런 내공이 나오는 걸까. 아직도 그 비밀을 찾기는 힘들고, 아마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그걸 처음 결정하는 데에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엄마와 아빠



가 없는 공간에 낯선 사람과 몇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 특히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이 주변을 가득 채우는 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낯선 이에게 남겨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불성실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민이 지속되고 결정이 늦어질수록 원래 직장여성이었던 아내(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의 육아 스트레스 또한 커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일로 인해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고민으로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렵게 돌보미 선생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하였을 그런 고민은,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기우(杞憂)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돌보미 선생님과 지내는 모습들을 몇 번 함께 본 적이 있는데, **떼쓰고 울 줄만 알았던 첫째는 어느새 선생님과 무릎에 앉아 도화지에 풍선에 그림을 그리며, 엄마 아빠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선생님께 들려주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늘 하던 투정과 장난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암전히 앉아 깔끔하게 밥그릇을 비웁니다. 온 아파트를 떠나갈 듯 만들어놓던 목욕탕에서의 씨름은 까르륵 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바뀝니다.** 저에게는 중노동,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말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선생



님은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준비물을 가져옵니다. 선생님이 떠난 자리에는 종이접기와 풍선이 가득하고, 스케치북에는 엄마, 아빠, 동물들, 과일들의 그림이 빼곡합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선생님이 문을 열고 ‘미래야’ 하고 불렀을 때 좋아하는 큰 아이를 보며, 저희 두 사람은 안심하며 집을 나섭니다. 어느 때는 고함지르며 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오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선생님은 아이의 즐겁게 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에도 선생님은 그렇게 두 아이를 살펴 주셨습니다. 산후우울증에 어느 날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라고 말해 절 너무나 충격에 빠뜨렸던 아내는 이제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방문을 시작한 날, 우리 두 사람은 ‘엄마, 아빠’로서의 삶, ‘한 여자, 한 남자’로서의 삶, 그것이 만나 만든 ‘우리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child, kid)돌보미 선생님이 결국 우리의 ‘아이(I)’까지 찾아 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아이를) 털 봤잖아’라는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상대가 없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조금 늘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아직 한국인들에게만 있던 손주병, 그로 인해 생긴다는 화병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취소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가을이 짙게 온 캠퍼스를 걸으며, 손을 잡고 낙엽을 차 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두 사람도 그 가을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혹을 바라보는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요즘입니다.

저녁퇴근 시간, 조금한 엄마 아빠의 발걸음을 조금은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주고, 오늘 아침도 수고하고 계실 전국의 돌보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미래(未來)인 제 큰 딸 미래(美來)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둘째 딸 나래(娜來)를 받아 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돌보미 선생님

부산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은경 님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 입사 면접 때 안내받은 육아휴직은 4개월이었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자리이고,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와 약속한 기간이었습니다.

학과 선후배로 알고 지내다 입사 할 즈음부터 만났던 지금의 남편과는 2013년 10월에 결혼하였고, 허니문 베이비로 계획보다 빨리 임신을 하였습니다. 축복받은 임신이었지만 예정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커져가는 기쁨과 더불어 육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 신분이라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양가의 양육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저희로서는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첫 초음파 사진을 찍었을 때 알려준 예정일 아침에 건강하게 태어난 고마운 우리 딸, 윤진이를 키우면서 초보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아이를 힘들게 한 적도 몇 번 있었



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목 주위의 붉은 반점이 염증으로 번지는 바람에 목 뒤에 큰 혹이 생겨 바로 누워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남들은 아이 뒤통수가 납작해진다고 엄마가 자는 아이의 머리를 돌려 눕힌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아파서 스스로 머리를 돌려 눕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니던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취를 감당할 수 없기에 당장 마취 없이 수술을 하든지, 잘 관리하다가 돌 지나고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엄마로서 미안함에 왈칫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군데 병원을 더 찾아가 보았으나 모두 한결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종합병원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3주간의 항생제 치료로 우리 윤진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독한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또 미안했는지 저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회사에 복직해야 할 날이 다가왔을 즈음에는 출산



후 생긴 손목 통증과 더불어 아이의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약간의 우울증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대부분 대기 중인 아이들이 있어 바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곳조차도 “아이가 너무 어리니 적어도 6개월 이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해도 직장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저녁 늦게 데리러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오전 10시에 왔다가 오후 3시면 집으로 가는데,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 윤진이가 혼자 어린이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 작은 어머니가 울산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시간제로 활동 중이시라 이것저것 여쭙았는데, ‘이거다!’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알아보고 부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인 가정이 많아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순위가 몇 번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을 정도니까요. 언제부턴가 담당직원이 제 목소리만 듣고도 윤진 어머니라고 아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전화해서 적잖이 귀찮으셨을 텐데, 늘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딸에게 “얼른 좋은 선생님 오시도록 엄마랑 기도하자.”라고 말하곤 하였



습니다. 우리 모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회사 복직을 며칠 앞두고 센터로부터 “2015년 신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채용되어 교육 중입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할 당시 대기 9번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기 1번이라는 희망찬 소식에 윤진이를 안고 바로 회사로 찾아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며, “단 며칠만이라도 출근을 늦춰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최종 결정권자인 본부장님께서 한 달의 추가 육아휴직을 제안하시고, 그 기간마저 다 되어가던 중에 기적 같이 지금의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면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희망했던 조건과 맞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었고, 선생님 또한 저희 집 양육을 희망하셔서 운 좋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낮에 집에 아이랑 둘만 있어서 늘 불안하다며 남편이 설치해둔 CCTV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면접 때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며 “내가 우리 애를 맡겼더라도 설치했을 거예요.”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급하게 복직을 하게 되어 선생님과 같이 양육하는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아이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날 퇴근했을 때, 선생님께서 “윤진이가 날 보면 자꾸 울어서 하루 종일 업고 있었어요. 퇴



근 시간에 맞춰 엄마가 오는지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라고 하셔서 딸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2주일 정도 지나자 윤진이랑 선생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같이 출근하는 저 대신에 학생인 남편이 다니는 연구실의 배려로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주로 윤진이랑 같이 있습니다. 남편이 “윤진이가 맘마 먹다가도 선생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먹는 맘마를 뿌리치고 기어서 선생님 마중 나간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선생님을 한 가족으로 생각할 만큼 가까워졌고, 딸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 CCTV를 확인해보았지만, 지금 수기를 적으면서 집에 CCTV가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이후로는 확인해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저희에게 큰 믿음을 안겨주셨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윤진이를 사랑해주시는 것이 마음 깊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앞서서 초보 엄마 아빠보다 훨씬 아이를 잘 돌봐 주시고,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 엄마가 엉성하게 자른 앞머리를 숨씨 좋게 예쁘게 다듬어주시는 능력자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별 걱정 없이 회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내 눈에 너무나 예쁜 우리 딸을 매일 매일 볼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입니다.**



“둘째도 키워 줄 테니 걱정 마시라.”는 선생님 덕분에,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남편이 취업하면 바로 둘째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정 엄마가 없었던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며, 우리 첫 딸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신 선생님과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침 선생님택 바로 앞에 신규로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가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직장 맘에겐 구세주 같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누구나 원하면 신청 후 긴 대기 시간 없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직장 여성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

우리 가정에 희망의 꽃을 피워 준 아이돌봄서비스

부산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정화 님

“어머니, 규랑이를 정말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또래에 비해 표현력도 뛰어나고 어른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도 이해하더라구요. 애교도 많아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있는 아이 같지 않아요.”

피곤에 지친 무거운 몸으로 퇴근길에 들린 3살 된 둘째의 어린이집 상담. 선생님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선생님들이 으레 듣기 좋아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규랑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이 내가 봐도 좋다.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실 규랑이에게는 엄마가 한 명 더 있다.

난 결혼이 늦었다.

남편은 나이 든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고 육아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 늘상 새벽에 퇴근했다. 41살에 둘째를 낳고는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고 아이를 안아 줄



수 없을 만큼 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70이 넘는 고령인 데다 친정 부모님은 장사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좋은 엄마가 되길 희망했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 갈수록 지쳐갔으며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이 모든 상황에 무관심한 남편이 미웠고, 육신이 고달파지니 아이들에 대한 짜증도 부쩍 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어.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진짜 돌겠다!”

이렇게 정신없이 퍼붓고 나면 4살 난 아들은 멍뚱뚱 겁먹은 눈으로 날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죄책감 때문에 커피와 술을 찾아 마셨다. 둘째 수유 중인데도 말이다. 증오와 죄책감이 반복되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졌고 그

럴수록 아이들은 나에게 더 집착했고, 나 이외에 그 어떤 다



른 사람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빠를 포함해서…….

그럴수록 나는 간절해졌다.

나에게 하루 한 시간만 아니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한 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버스광고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라는 걸 보게 되었다. 나는 큰애를 몇 시간씩 맡겨보기로 결심했으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다.

“집에서 놀면서 애 둘도 혼자서 건사를 못하냐?”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지 뭘 믿고 남한테 니 자식을 맡기냐? 애를 세탁기에 집어넣어 놔더라는 뉴스도 안 봤냐?”

“언니, 남한테 애 맡기는 거 괜찮겠어요?”

당시 워낙 사설기관의 베이비시터 선생님들의 문제행동이 보도되고 있던 터라…….

사실 나도 큰 기대는 안했다. 그냥 몇 시간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그러다 2013년 1월 11일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첫 인상이 후덕해 보이는 선생님은 뭔가 힘들게 애쓴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아이에게 가방에서 풍선을 꺼내 불어 주기도 하고 색종이를 꺼내 배며 비행기며 공을 척척 접어 나갔다. 동육이는 선생님에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선생님 곁에 점점 다가갔다.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를 구사하는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전문교육을 받은 분 같았다. 엄마 이외에는 그 누구의 품도 거부했던



큰아이가 선생님의 무릎에 앉아 책도 읽고 선생님이 떠먹여 주는 밥이며 간식을 넉넉넉 잘 받아먹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선생님은 엄마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봐주셨다. *낮잠이라도 들면 조명, 베개높이, 이불의 종류까지 가려서 덮어 주셨다. 밥을 먹일 때도 일일이 아이가 먹기 좋도록 반찬을 자르고 정성스레 먹이셨다. 선생님의 가식 없는 사랑은 우리 큰아이를 점점 밝게 만들어주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건 바로 ‘나’다.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던 나에게 선생님은 친정 엄마 이상으로 따뜻했다.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직업을 갖게 되었다. 늦게 들어오는 신랑에 대한 원망도 이해로 바뀌었다. 남편도 선생님만 계시면 나의 출장과 늦은 귀가도 문제 삼지 않는다.

내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로 “엄마” 하며 달려 나온다. 아이들의 뒤에는 아이들로 인해 힘들었을 선생님이 내색하지 않고 푸근하게 웃고 계신다.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 녹는다.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온다는 걸 미안해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선생님은 엄마의 마음을 배려하여 내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송해주신다. 사진 속에 숨박꼭질하다 들킨 큰아이의 미소와 예쁜 꽃핀을 한 둘째



규랑이의 모습에서 엄마의 빈자리는 느낄 수가 없다.

놀이터에 나가면 많은 애기엄마들이 묻는다.

“동욱이 엄마가 요즘 잘 안보이고, 다른 분이 애들 돌봐 주시던데 누구예요?”

“돌보미 선생님이예요!”

“그래요? 난 이모나 친지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더라구요.”

“그런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연제구 아이돌봄서비스에 전화해보세요!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더라고요.”





“

나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강원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오기우 님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열하다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다. 오후 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자정을 넘어서 일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넘는다.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함께 곤히 잠든 두 딸에게 “아빠 왔다~ 어이구~ 이쁜 내 새끼들~~쭈쭈쭈쭈” 하고 뽀뽀 세례를 퍼 부우면 아이들은 아빠가 온지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아내는 애들을 깨운다며 나무라곤 한다. 아내의 말에 서운하기보다 이 시간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아내와 사랑스런 두 딸을 생각하면 힘든 것도 잊을 만큼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 가진자의 여유”를 갖기까지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나를 닮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내 삶에 “육아”라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첫째 딸 돌잔치에 이미 둘째가 아내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



었고, 몇 개월이 지나 둘째 딸이 태어난 후 나는 육아에 동참하게 되었다. 첫째 딸을 키우며 산후우울증으로, 독박육아로 고생한 아내에게 둘째는 봐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터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딸을 키우는 동안 나는 아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육아를 해왔다면, 둘째는 아내가 나에게 아이를 맡긴 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영당이 씻기고, 이유식, 간식 등등 바쁜 시간을 보낸 후에 좀 놀아 줄 여유도 없이 낮잠을 재우다 보면 어느새 딸보다 내가 먼저 잠이 들곤 했다.

5개월 동안 매일 아침 3시간씩 아이를 돌보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일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늦게까지 자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채는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항상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아내와 육아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다. 안 좋은 마음으로 오후에 일터로 나가는 길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밤늦게까지 두 아이의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 나도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해가 저물면 퇴근해서 토끼 같은 아이들의 마중을 받으며 아내가 해준 평범한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삶이 그리웠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알게 되었다. 유.레.카!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자고 설득했고 혼자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등록하고 돌아왔다. 아마도 직접 찾아간 남자는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그 후로 지금까지 너무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9년 전 암으로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참 많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는 늦잠도 가능해졌고, 출근할 땐 발걸음도 한 걸 가벼워졌다. 감히 단언하건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아빠들에게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사를 준비 중이다.

이사 가기 전, 지금까지 우리아이들 돌봐주신 선생님께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참 많이 부족한 아빠입니다.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든든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 부모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아이들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어머니와 같은 마음 많이 배웠습니다.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은, 하은 아빠 오기우 올림.”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긴 시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통해, 우리 가족은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도 우리 부부도 가정과 일터에서의 안정을 찾게 되어 맞벌이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바로설 수 있게 큰 보탬이 된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햇살 가득 사랑

제주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김성희 님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출산일이 코앞으로 닥쳐도 하나도 걱정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산만 한 저의 배를 보며 아이는 누구에게 맞길 거냐고 주변 분들이 걱정스레 물어보실 때마다 속으로 왜들 저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그냥 어린이집에 맡길 거예요!”

하고 가볍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받는 기사와 위험투성이인 현실과,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은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사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더군요. 복직했을 때만 생각하면 저를 찾으며 우는 아이모습만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울면서 보냈습니다. 출산휴가는 순식간에 끝나고 복직을 눈앞에 앞둔 그때, 남편과 저는 그래도 남보다는 어른들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서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서 가정집이 아닌 가

게에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싫었지만, 믿을 수 없는 남보다는 그래도 핏줄에게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스스로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태어난 둘째도 그렇게 1년을 버티고 견디며 키웠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을 땐 두 아이 모두 24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계속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가장 기뻐던 점은 아이를 떼어놓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때, 저는 셋째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 형제들은 1월과 3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끝나는 계절이 봄이 지나 여름이 되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걱정되지 않았지만, 셋째는 여름에 태어나다 보니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기가

한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말경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저의 처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복직을 할 경우 12월 한 달만 지나면 1월과 2월에는 방학기간이 있어서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





는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경제적인 논리만을 생각하며 출산휴가가 끝났을 때, 바로 휴직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며 시부모님의 가게로 아이를 데려가다 보니 갓 100일을 넘긴 셋째아이는 집밖을 나서며 썩게 된 겨울 찬바람 때문에 코가 막히고 기침이 심해지게 되었죠. 젖을 먹지도 못하고, 먹은 것은 무조건 다 토하는 아이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서 방학기간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더 고민 없이 휴직을 선택하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는 절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였지만, 아픈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맡은 업무를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중도에 그냥 휴직을 선택할 수도 없어서 셋째 아이를 돌봐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고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안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 그때의 제 마음은 이젠 아이를 집에서 보게 되어 기쁜 마음



보다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게 되었기에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집에 숨겨 두고 갈까? 사전 연락 없이 중간에 집에 들이닥쳐 볼까?’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꼭꼭 숨기고, 아이에게 한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은 꼭꼭 묻쳐둔 채 첫 하루가 지났습니다.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부리나케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께 아이를 얼른 건네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몸에 빨갛게 변한 부분이 있거나 심하게 운 흔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못난 마음은 모르신 채 선생님께서는 오늘 하루 아이를 돌보시며 있었던 일을 웃으며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살짝 놓였지만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며 속으로 저를 채근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만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비우면 젖병을 잘 안 빨아서 배고프다고 칭얼댔던 아이가 선생님께서 먹여주시는 젖병은 다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다 비운 젖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누구보다 기쁘게 웃는 선생님 얼굴을 보니 꿈꿨던 제 마음이 다시 살짝 녹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저도 다시 제 마음을 꼭 싸매었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아침에 집에 오시면 아이가 반갑다고 버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나날이 지나고, 제가 퇴근하고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뒤 무심코 거실창문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



람들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어서 저는 항상 커튼을 창문에 쳐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커튼이 환하게 걷어져 있었습니다. 왜 커튼이 열려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다음 날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더니 커튼이 걷혀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왜 자꾸 커튼을 여시는 거지?’

선생님께서 자꾸 커튼을 열어 두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하게 되어 평소보다 집에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는 선생님께서 자꾸만 커튼을 열어두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커튼을 열고 환히 빛나는 햇살과 햇살 아래 빛나는 나무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빛나는 햇살만큼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겨울을 머금은 바람까지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진심으로 마음이 놓인 저는 마음 편히 12월, 1월, 2월을 보낼 수 있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이 되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일 무렵이었던 저희 아이는 어느덧 돌이 지나 지금은 아장아장 열심히 걸음마를 뒀을 만큼 자랐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는 창가 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장아장 혼자 창가까지 걸어가서 신나게 커튼을 걷은 채 창밖을 가



리키기도 하고, 창문을 두드리기도 하며 한참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그런 아이 덕분에 저도 창가에 서서 그때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보여주셨던 햇살 가득한 사랑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

세계 최고 예준이 선생님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백혜은 님

“늘 감사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서둘러 신청하는 아이돌보미 스케줄이지만 그 와중에도 센터 담당자 선생님과 돌보미 선생님께 신청란에 빼놓지 않고 작성하는 한마디입니다. 많은 감사의 표현을 적고 싶지만 맘이 급한지라 이 한마디로 대신한지가 3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워킹맘이자 서른 여섯에 첫 출산을 한 노산맘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꼭 사연을 보내야겠다 맘 먹은 것은 저의 위로이며 예준이의 사랑인 돌보미 선생님께 꼭 진심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과 저희의 만남은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결혼 5년만의 아기였지만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기에 회사복귀 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때에 여성가족부는 동아줄을 내려주듯 소중한 인연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 감사와 사랑이 있으시겠지만, 제게 돌보미 선생님은 일하는 엄마의 슬픔도 돌봐주신 분이며, 제 아들에게



는 친할머니, 외할머니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작년엔 회사에서 최고의 직원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는 내년엔 둘째를 낳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질 수 있던 것도, 3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과 결근이 없으셨던 성실하신 돌보미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젠 감히 아이돌봄서비스 전도사라고 자부할 만큼, 다니는 곳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돌봄 사이트를 전파하고 다녀서 제 소개로 같은 부평지역뿐 아니라 수원, 창원, 대전, 울산, 서울 지역 등에서도 이용하는 회사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실은 저희 회사의 90%가 여성이며 대부분 결혼, 육아, 출산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나이지저든요~^^;

저의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서비스 예찬은 보통 이렇게 묻는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다니세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면 애기는 누가 보나요?” 사실 저는 지방출장이 매우 잦은 일을 합니다. 인천에서 노원, 천호, 의정부 등 서울 외곽 출근 시 6시 30분, 새벽 5시 30분 KTX를 타고 지방에 갔다 와야 하는 날엔 4시 40분에 집을 나설 때도 있습니다. 자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손가락 한 번 만지고 조심스레 빠져나오면 옆방에서 정신없이 자는 신랑보다, 6시가 되기 전 오실 선생님이 계시니 그렇게 든든한 맘으로 출발합니다.

아들이 15개월까진 그렇게 하루 종일(6시부터 밤 8시까지) 돌봐주셨고,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로는 6시부터 씻겨서 아침먹



이고 양치시키고 옷 입혀서 9시 40분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 시기까지 엄마들의 전쟁을 고스란히 돌보미 선생님께서 치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4시에 어린이 집에서 데리고 나와 놀자고 보채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여기저기 신기해하는 아들 발걸음에 맞춰 한없이 개미관찰도 해주십니다. 그러곤 5시쯤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블록 놀이도 해주시고 학습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긋이 봐주시기까지... 하루 종일 육아전쟁으로 고단하실 텐데도 마지막 헤어지는 저녁 8시 까지도 매달리는 아이에게 웃으며 내일 보자고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십니다.

제가 더 선생님을 믿고 일에 전념할 수 있던 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적힌 활동 일지 때문입니다. **활동 일지에 선생님의 성실함뿐 아니라 아이에 대한 관심과 저에 대한 배려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새벽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서로 못 만나기 쉬운 저희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종이 일지로 아이의 기상, 수면시간, 우유 먹는 시간부터 배변, 체온, 아이의 일상,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달사항 그리고 제게 주시는 위로나 당부를 주고받습니다.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보관한, 앞뒤로 적혀진 1,000개가 넘는 일지는 CCTV 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선생님의 전문성과 아이의 발달을 볼 수 있는 제 보물입니다.** 이런 성실과 신뢰로 제가 집중하며 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아이의 상황을 못 보는 엄마의 슬픔을 알아서 핸드폰 사진도 자



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사진들과 늦은 밤 주방식탁에 앉아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일지를 보며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와 선생님께 대한 감사로 참 많이 읊니다.

눈물보따리는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옷을 바꿔 입히는 시기에도 실내 온도와 습도도 미리 챙겨주시고 아이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 해에 눈이 부셔하는 걸 알고, 일부러 낮 시간과 저녁 하원 시간에도 틈틈이 더 해를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밖에서도 눈을 뜨고 다닐 만큼 시력도 좋아졌습니다.(예전엔 썬글라스 없이 눈을 못 뜰만큼 빛에 예민했거든요.) 돌보미 선생님이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드러내서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예준이를 손주처럼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옥철을 바람처럼 이용하고 환승 전철시간과 가장 빠른 환승문, 개찰구를 이용하며, 줄다 무릎이 꺾이기도 하고 달리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며 늦은 퇴근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서두른 제게 괜찮다고



세수 먼저 하라고 말씀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선생님이 가시면 그제서야 저녁 밥은커녕 놀자고 떼쓰는 아이를 가까스로 책 몇 권으로 달래고 재운 후 다시 혼자 2차 육아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내일 먹을 밥이 있는지 전기밥솥을 확인하고, 2~3개의 국을 만들고



통에 담아 냉동실에 쌓아두고 반찬은 1주에 2번 정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돌려 먹이게 하는 준비인데도 그것도 숨이 차, 피곤에 절은 오이지가 됩니다.

손주처럼 키워주시는 사랑을 가만히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몇 자 적기 시작한건데... 끝을 낼 수 없을 만큼 이야기가 이어 집니다. 회사 워크샵 준비와 진행, 신랑의 출장 때 수족구에 걸린 예준이. 가까이 사는 언니도 아이가 있기에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돌보미 선생님이 돌봐주셨고... 친정 엄마와 뼈저대는 제게 엄마의 입장을 헤아려 얘기해주셨고 말을 예쁘게 가르친다고 아들에게 존댓말 하는 제게 어머니께도 귀하고 소중한게 대하고 말해야 한다는 어른의 말씀은 솔직히 정신이 번쩍들 만큼 회초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제게, 예준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 위로와 의지가 되어 주시고, 이제는 예준이도 “예준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화수분 같은 선생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둘째도 선생님이 함께 길러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예준이 치과의사로 잘 키워서 오래오래 같이 할 선생님 치아는 평생 치료해 드린다는 약속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돌보이수기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의 사랑 어린 천사들 · 충남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윤금희 님



아이들 얼굴에서 꿈이 보여요! · 경기도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춘 님



목적지는 저 멀리 있지만 한 걸음씩 걷다보니 지나온 길이 아름다워 천천히 천천히 걸어볼 테다
·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김효은 님

육남매의 등대지기 · 경남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은주 님





“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의 사랑 어린 천사들

충남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윤금희 님

저는 결혼 초부터 맞벌이한다고 두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키워주셔서 남의 아이를 키워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지인의 소개로 2013년 내 나이 59살, 40년 만에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이력서를 처음 써보고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는 동안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나의 마음과 정신의 눈동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만큼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교육받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교육이 끝나고 일을 하려고 하니 가슴이 떨리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손자와 손녀를 돌본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의상도 입고 사랑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7살, 4살로 돌아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나에게 행복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22개월 된 아주 통통하고 잘 웃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에 거품 물며 뒤로 넘어가는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빠,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였고, 담배 피우는 어른들, 거친 말이 오가는 어른들의 환경 속에서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빠 엄마가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는 비염에 기관지가 안 좋아 감기를 늘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차츰차츰 아이의 건강도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 어린이집에서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서 원장님이나 담임선생님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고 아이의 모든 행동발달을 차분히 기다려주며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201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척에게서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갑작스런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 불쌍해서 어떡해... 흑흑” 한 열흘 정도 혼자서 가슴앓이하다 아빠가 잘 키우겠지 하며 조금씩 잊혀질 무렵 2015년 5월 중순쯤 아이 아빠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다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 만나게 되었지요.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 선생님이야” 하고 부르니 막 뛰어나와 가슴에 안기며 어



린이집 친구에게 “우리 선생님이야~”라고 사랑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7개월 만에 만났는데 잊지 않고 반갑게 맞아준 아이... ‘고마워 ○○아 선생님도 항상 ○○이와 마음으로 같이 있었단다.’ 하며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집에 안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잠 잘 때면 아이가 묻습니다.

“난 선생님이 최고루 좋아~ 선생님은 어디 안 가지?”

“그럼 절대로 안 가요...”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면 뽀뽀를 두 번 이상하고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쯤 ○○이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재워주세요. 집에 보내지 마세요.”

“왜, 무슨 일 있나요?”

“예, 사고가 났어요”

혼자서 생각하기를 출근길 교통사고인가 했습니다.

“몸은 요?” 물으니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하고 ○○이 아빠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쯤 경찰이 전화가 와서

“○○이 어린이집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보낼 거예요. 계속 보낼 거니까 ○○이 아빠한테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면회는 된다고 하여 다음 날 면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질 않았지요. 아이를 보낼 때가 없었습니다.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 친척들은 외면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혼해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 아빠가 구치소에 있는데 우리가 잠깐 키우는 건 어떨까? 우리 수입이 한 달에 백만 원이면 칠십만 원 번다 생각하고 키워보자.”라고요. 아이 아빠 나올 때까지만 우리 예쁜 ○○이 잘 키우자고. 네 살배기 우리 ○○이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없어졌고 또 몇 달 있다가 자고나니 아빠가 없어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표현은 못 해도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을까요.

다행히 ○○이는 우리 부부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어느 아이처럼 구김이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빠를 찾으면 “○○아 아빠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일 끝나면 오실거야”라고 말해 줄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아빠에게는 ‘나올 때까지 잘 돌볼 테니 나오게 되면 올바르게 살아달라’고 편지했더니 답장에 ‘후회하고 있으며 나오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전과가 있어서 탄원서가 없으면 1~2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고, 저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잘 되면 두



달 정도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요. 말로만 듣던 탄원서를 서툴지만 솔직하게 쓰면서 재판장님에게 우리 ○○이를 위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날짜가 7월 30일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판장님이 탄원서를 읽어보시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이 잘 키우라고 7월 30일 판결 때 그날 내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빠는 곧바로 와서 나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흐흫,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아빠가 열심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 나이 62살 아이돌보미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도 아이 엄마가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도록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제가 돌보는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아이돌보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2015. 10. 28. 태안군 건강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윤금희

돌보미 수기



“

아이들 얼굴에서 꿈이 보여요!

경기도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기춘 님

아이돌보미를 시작한지도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처음 생각했던 용돈을 번다는 개념보다 그 속에서 돈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 속에서 그들 눈높이에서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시간의 열매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았던 많은 아이들 중 더 많이 안아주고 뽀뽀 해주면서 정이 쌓여 가고 있는 두 가정의 아이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누나는 일곱 살, 동생은 세 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반겨준 얼굴은 폭 파인 눈, 뽀족한 턱, 새까만 피부를 한 중년 부인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약간의 미소를 띠우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눈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라는 것



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오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유방암 말기라고 하며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니 동생 녀석이 저를 따라 가겠다고 먼저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생후 3개월 때 암 판정을 받아 그때부터 할머니, 돌봐주시는 분 손에서 2년 6개월 동안 보냈으니 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이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저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날이면 할 수 없이 업고 재우면서 잠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 깜깜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하늘에 그려볼 때가 많았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지금까지 손가락을 빨면서 자는 이 녀석과 함께 한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출입한 지 만 일 년 만에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지 하루는 저에게 “선생님, 아이들 잘 부탁해요.” 하며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아이가 엄마를 너무 일찍 여의어서 계속 그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옆에있던 누나가 ‘죽어야 가는 하늘나라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하자 엄마 만나러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으면 아이



의 가슴에는 엄마의 그리움이 배나 커질 거란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죽기 전 간절한 부탁이 새삼 크게 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돌보며 아이의 내적 세계에 또 다른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연령이 7세도 채 되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9살, 8살 된 자매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집안은 쓰레기장보다 더 어질러진 상태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이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지한 엄마의 흔적이 아이들의 얼굴에 쓰여 있어 눈치 보며 나를 쳐다보던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쓰러운 아이들이 온통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아이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상담심리 기법을 적용한 역할 심리 놀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입장이 돼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연극을 하도록 유도했고 학교에서 그늘진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학교놀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극 놀이를 매일 같이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경계의 눈빛도 없이 시키지 않은 말도 많이 하며 텔레비전 앞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자매가 같이 서로 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팔목상대한 변화일 텐데, 요즘은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언니를 위해 학교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90점을 맞아왔다며 자랑하는 해맑은 모습까지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쁘던지 공부하는 기쁨을 알게 된 언니와 그 언니를 보며 자신도 공부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생까지 요즘은 두 자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보람으로 아이돌보미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어머니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이 가정에서는 왜 그리 어렵고 힘든지...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하며 이 집에 오게 된 것을 처음에는 불평했으나 지금은 보람과 긍지로 바뀌게 된 내 모습에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나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아이돌보미라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는 크지 않지만 이 일을 하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일군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일상의 가정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까지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하는 이들에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도움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는 잊혀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맘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

목적지는 저 멀리 있지만 한 걸음씩 걸다보니 지나온 길이 아름다워 천천히 천천히 걸어볼 테다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김효은 님

2009년에 5살 꼬맹이를 만나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는 초등 4학년 여아 이야기입니다.

처음 복지관에서 전화요청 받았을 때 선생님의 말씀이 ‘돌보미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힘든 가정이니 오래 활동해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고, 센터 담당자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에 일단 한 번 부딪혀보자 하며 맘속에서 꿈틀한 무언가가 작용했습니다.

아이는 5살, 엄마는 29살 내 자식 같은 나이의 어린 엄마였습니다. 13평 원룸에 소꿉장난 하듯 공기 2개 국그릇 2개 알루미늄 냄비 2개……. 살림을 보니 아마도 동거생활을 하다가 맘에 안 맞으니 이혼을 하게 된 거 같았습니다.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고향도 시골이라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아이를 맡아 줄 사람도 없어서 엄마가 일하게 되는 그런 날엔 우리 집으로, 큰 집으로, 친정으로 데리고 다니며 돌봐주어야 해서,

다 맞춰 봐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죽여 버릴 거야, 선생님 세탁기에 넣어 버릴 거야, 우리 집에 오지 마” 등등 말투도 너무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세 보이면서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서 숨어 버리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게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녕~?” 하고 인사하면 숨기만 하고, 말을 걸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했고 참 난감한 일도 많았습니다.

5살 꼬맹이가 대변 누고 혼자 뒤처리를 다 하고, 옷 벗으면 개어놓고, 책도 장난감도 얼른얼른 정리하고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엄하게 키워졌습니다. 엄마 혼자 키우다보니 바른 교육을 하려는 건 이해되지만 아이는 언제나 어지러까봐 조바심 내고 제 손이 위로 올라가면 아이는 때리는 줄 알고 놀래기도 하고 야단맞을까 봐 기가 폭 죽어 있었습니다. 애교도 어리광도 못하고, 평소 놀렸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 댔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다독여주고 참아주고 계속 아이를 살피가면서 차츰 아이 맘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뭐라도 표시를 맘껏 하고 싶을 때 감정이나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점점 감정표현이 서툰 아이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면 무조건 아이를 쥐어박고 조그만 잘못에도 엄하게, 과민하게 야단치곤 해서 엄마



랑 의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짐 일 수도 있었 습니다.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해도 “에고 화 많이 났구나.” 하며 마음을 읽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해주려고 계속 중점적으로 했던 건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칭찬할 때는 꼭 안 아주기였습니다. 아이는 어색해서 늘 손으로 밀어내고 엉덩이 를 뒤로 빼곤 했지요. 어느 정도 지나니 익숙해졌고 자연스러 워졌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우리 친정엄마, 할 머니도 자주 만나게 해줬습니다.

아이 엄마가 자꾸 못났다고 말하니 아이 스스로 “나는 못났 어요.”라고 늘 말합니다. 저는 상관없이 “예쁘다, 예쁘다”고 계 속 합니다. “그런가? 아닌데…….” 싶어도 조금씩 입가에 미소 를 띠게 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 키고 싶고,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했던 놀이가 미스코리아 놀이였습니다. “넌 예쁘니까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야지, 우리 미스코리아놀이 해보자.” 하며 유도했습니다. 창피해 하면서도 웃으며 따라옵니다. 제가 먼저 방을 한 바퀴 돌며 한 팔은 허리 에 한 팔은 흔들며 미스코리아처럼 걷습니다. “여러분 안녕하 세요. 4번 김효은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호호호 행복하세 요.” 그럼 또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 번 돌면서 다양한 말들로 바꿔줍니다. 자기소개도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아이는 두 마디, 내가 세 마디 하면 아이는 네 마디 점점 늘려갑니다. 말의 단어가 부족해 어휘를 계속 늘려줍니다. 노

래자랑도 합니다. 손뼉 치며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영 상 보며 율동하며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뭐든 제가 먼저 나가 열심히 하는 걸 오버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기, 춤 추기, 다양하게 시도해 보다보니까 소녀시대 영상을 보며 따라 하는 아이의 몸동작이 참 예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탁월 하게 잘 따라했습니다.

엄마에게 ‘재능이 보이니 무조건 무용을 보내야 한다’고 설 득했습니다. 학원도 다 알아보고 원장님께 얘기해서 원비도 깎 고 해서 7살부터 무용학원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이는 몸이 쭉 쭉 늘어나고 팔 다리도 길어졌습니다. 키도 커졌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또래들보다 월등히 잘해서 부산대학 교 공연에 아동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옷도 대여하고 머리도 해주고 직접 데리고 다니시더군요. 누리 마루, 평화공원에서 공연도 참가했습니다. “넌 꼭 무용 전공해 라 알았제?” 원장님 말씀입니다. 엄마도 아이도 얼마나 좋아하



는지 자신감이 점점 채워지면서 아이 는 더 밝아지고 엄마도 안정감을 찾 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조금 떨 어지긴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고, 제게는 이 아이의 잘 하는 걸 찾아 성장에 도움 될 수 있었다는 기쁨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는 왈가닥 소녀로 바뀌었습



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말도 겁니다. 제가 가는 미용실,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도 달라 해서 먹기도 하고, 길에서 제 지인을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조르기도 한답니다. 저나 할머니를 보면 어디서나 조르르 달려와서 일단 안겨서 “사랑해요” 하면서 인사합니다. 남자 아이들도 꿈쩍 못하게 휘어잡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아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살고 있지만 안정감 있게 자라가는 아이를 보며 못났다고 놀리던 딸을 이젠 엄마 닮았다고 자랑도 합니다.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마음의 여유가 보여 더불어 저까지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더러 얘기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서른 살 될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면 돈이 많을 테니 그때 선생님께 2억 드릴게요.” “하하하, 진짜지??? 녹음 해 놔다 꼭 쥐야 해~” 저는 벌써 연금 2억을 확보했습니다. 아들만 있는 저는 대리만족하며 제 딸이라고 행복해합니다.

이 아이가 간혀서 지냈을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갑갑합니다. **하지만 돌보미 일이 생겨서 한부모 가정이지만 엄마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좀 더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 주고, 성격이 바뀌어 활가닥으로 변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참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 속에 가진 원석을 발견하는 기쁨, 그 원석이 잘 다듬어져 가는 걸 보니 오늘도 기쁨의 함박웃음이 입가에 머뭍니다.**



“

육남매의 등대지기

경남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은주 님

“똑똑똑”

출입문 두드리는 소리에 네 살 쌍둥이와 갓 돌을 지난 여섯째가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인사를 한다. 나도 돌보미 앞치마를 입고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준비해간 동요 CD를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시작한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든 일은 줄을 서서 순서대로 규칙을 정해 놓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을 최소화하고 일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평일에는 첫째, 둘째는 학교에 가고, 셋째는 유치원에 가지만 엄마가 대학원에 가시는 토요일에는 여섯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지낸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식사가 끝나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스스로 싱크대에 가져다 놓기, 더러워져 벗은 옷은 빨래 바구니에 가져다 놓기,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리기 등의 규칙이 생겨났다. 이런 규칙들로 인하여 밥그릇과 빨랫감이 뒤섞여 있던 어수선했던 집은 한



결 깨끗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세요?”
라고…….

처음엔 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육남매와의 인연은 2년 전 이맘때 쯤, 아이돌봄 담당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쌍둥이가 돌이 갓 지났을 무렵이니 첫 만남은 오남매의 집이었다. 매번 한 명의 아이들만을 돌보다 쌍둥이라는 말에 긴장된 마음을 안고 마당을 들어서선 순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쌍둥이를 돌보게 된 아이돌보미 이은주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집 안에 들어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있었고, 손은 분유를 빨리 달라는 듯 엄마의 치맛자락을 당기고 있었다. 제일 먼저 손을 씻은 후 엄마에게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서둘러 분유를 탔다. 한 명씩 안고 분유를 먹이니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잠이 들었다. 쌍둥이가 잠든 후 엄마와 함께 아이들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참고해야 할 양육방식, 가정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쌍둥이는 8개월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 50일 남짓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다 엄마 품으로 온 아이들이었다. 10개월 만에 완성되는 모든 장기들이 8개월 만에 만들어지다 보니 기능들이 미숙했다. 찬바람만 불면 폐렴이라는 질병을 앓고, 성장 단계는 개월 수보다 항상 늦었다. 이런 쌍둥이를 돌보며 집안 살림과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매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했다. 엄마는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죄송하다며, 어질러져 있는 집 안이 부끄럽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 용기를 내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 둘만을 키우며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던 때를 떠올리며 다섯 명을 키우며 공부를 병행하는 아이 엄마의 고단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양육의 손이 부족해서인지 마음대로 무엇이 안 될 때마다 불만의 표시로 넷째는 방바닥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했고, 다섯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했다. 나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칭얼대며 낮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면 쌍둥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나가고, 자다 깨면 포대기로 업어 인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잠들기 전 마구 울어대던 아이들은 이제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등을 쓰다듬기만 해도 편안히 잠이 든다.



네 살이 되면서 또래들과 함께 한국말을 자연스레 배우기 위한 바람으로 일본인 엄마는 어린이집에 보내길 원했지만 아 빠는 좁은 장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마음 아프다며 아 이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하는 가정 보육을 원하셨다. 부모님은 의논하여 가정 보육을 선택하셨고, 그리하여 쌍둥이와 나의 만 남은 계속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진 않지만 어린이집 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난 부지런을 떨었다.

아이들과 함께 계절의 바뀜을 자연스레 느끼기 위해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 이 시장구경과 함께 주전부리로 빵을 한 입씩 깨물었다. 일주 일에 한 번은 꼭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고, 가까운 곳에 무료 인형극이 열리면 어김없이 보러 갔다.

육남매의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 아버님께서 텃밭을 가꾸 신다. 텃밭 옆에 있는 큰 감나무는 우리의 과일 가게이다. 먹고 싶을 때마다 잠자리채로 한 개씩 따서 먹는다. 아이들은 높은 나무에서 감이 내려올 때마다 “우와 우와” 신기함을 감추지 못 한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 하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순간순간의 아이들 모습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로 찍어 USB에 옮겨 놓았다가 일 년에 한 번 아이들의 생일에 맞추어



선물했다. 어떤 성장 앨범보다 값지다는 엄마의 말씀은 나를 웃음 짓게 한다.

13년 전 의령으로 시집 와 두 아이를 키우며 내성적인 성격 의 나는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 신랑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의 령은 나에게 항상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 우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이웃집 언니는 나에게 아이들 을 사랑으로 키우는 재능이 있다며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알 려 주었다.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서를 내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받은 후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만 살던 나는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일을 시작 하며 나의 존칭은 아줌마에서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이라 불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전문성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과정을 공부해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결실을 낳았다.**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자격증은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 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더불어 틈틈이 도서관에 들러 최신 육아코칭 도서도 읽곤 했다.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준비해준 보수교육이 큰 몫을 했다. 어느 영화배우의 말처럼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맛 있는 밥을 먹었을 뿐인데 가랑비에 옷 젖듯 난 육아의 전문가가 되 어 가고 있다.**

요즘 활동이 있는 날은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 신나게 놀고,



활동이 없는 날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육아상식이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해를 입히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여러 교육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집 안 일을 잘 도와주는 첫째, 심부름을 잘 하는 둘째, 동생과 잘 놀아주는 셋째, 장난감 정리를 잘 하는 넷째, 유일한 딸 애교쟁이 다섯째, 엉뚱한 행동으로 나를 웃게 만드는 귀염둥이 여섯째…….

2년 남짓 만나다 보니 우린 닮아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산책 나가는 우리를 보며 “우째 이리 닮았소?”라는 말을 한다.

사람들은 나의 아이들이냐고 오해를 하곤 하지만 난 굳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살짝 미소만 지을 뿐…….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가족 육남매.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태석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연락처 Tel. 02-3479-7600, Fax. 02-3479-7699
홈페이지 www.kihf.or.kr
편집·인쇄 도서출판 씨아이알 TEL: 02-2275-8603, FAX: 02-2265-9394

ISBN 979-11-5610-181-9 (03330)

2015-KIHF-066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